많이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많은 사람이 베푸는 것이 더 좋다.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부자들이 많은 세상보다 더 아름답다.

세밑이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말이 구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들을 돕는 것이 연말연시의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다. 어떤 마음으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하는지 경전말씀을 들어본다.

이렇게 들었다

보살행

"어머니가 외아들 아끼듯"

▩온갖 중생의 생명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애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 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중생을 애호(愛護)하되 제 몸과 같이해야 한다. 〈보살행변화경〉

▩현재(現在)라는 나라가 있었다. 한 장로 비구가 위중한 병을 얻고 현재국의 한 절에 누워 있었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손수 그의 몸을 씻어 주며 말씀하셨다.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공양하면 그 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될 것이다." 〈법구비유경〉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 역시 병들었으며, 모든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미혹의 세계)에 들기 때문이다. 미혹의 세계가 있다면 병도 있게 마련이다. 만약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일어난다. 〈유마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숫타니파타〉

▩우주는 한집 중생은 한가족. 이래서 우리 중생은 아득한 옛적부터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 〈대승본생심지관경〉

▩중생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인들 아까우리. 그라도 모자라면 이 몸도 바치리라. 〈보살본원경〉

▩이보오 길손이여, 대비심 일으켜 가여운 중생들을 힘따라 구제하세. 끝없는 육도윤회 영원히 벗으려면 이러한 구호중생 최상의 길이라네. 〈대방광불화엄경〉

▩불심(佛心)이란 큰 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관무량수경〉

▩보살은 보리를 수행할 때 모든 병자에게 의약을 베풀고 마땅히 이런 원을 세워야 한다.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병을 끊어버리고 여래의 금강신(金剛身)을 완성케 해야한다. 〈열반경〉

▩자비의 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므로 보리(菩提)는 중생에게 딸린 것이다. 〈화엄경〉

불자 세상보기

자살사이트와 촉탁살인 '충격'

이근후
이화의대 교수

"아름답게 죽으려고 하는데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사이트의 게시판에 자주 오르내리는 질문이다. 이번에 실제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파악한 바로는 36개 정도의 자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문제의 사건이란 다름이 아니라 한 10대 청년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20대의 자살 희망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이뤄진 자살이자 촉탁살인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살은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 학습된 요인, 뇌의 생화학적 물질에 의한 것 등 정신과적 질병과 유관하다. 개인의 정신병리를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요인을 이해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요인에 의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과도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있기 이전에도 자살은 있었고 청부 살인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현상과는 달리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더한 것은 인터넷으로 인한 확산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살과 기존의 청부살인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런 점은 비단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우리가 새로운 윤리성을 정립하기도 전에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사건과는 다르다. 생명에 대한 경시, 상업적 가치관, 일차 사고과정적인 행동양태를 부추기는 개인이나 사회적 자극에 대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방책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수습책으로 자살사이트 폐쇄가 논의되고 사법처리까지 강구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대응방법은 구태의연한 것이다. 사이트의 폐쇄만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손쉽고 안이한 방법일 뿐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핵심을 피해 가는 것이다. 충격적인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진정한 핵심을 피한 채 지엽적인 원인에만 집착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우선 충격적인 사건에 대처하는 우리의 속성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인터넷 윤리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 자살충동의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를 사회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의해 자살이 아니면 돌파구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는 사회병리적 상황을 건강하게 바꾸어 놓는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이 갖는 피할 수 없는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런 속성 가운데 역기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오늘날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을 핑계삼는 폐쇄 일변도의 대책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런 제한적 조치보다는 정보사회를 살아갈 인터넷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할 법률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 대책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만 내세운다면 인터넷의 역기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며, 역기능의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인터넷 윤리와 법률의 합의를 위해 개설자나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을 촉구해 본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민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자기안에 있는 부처 만나길

우리는 사람으로 와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기를 반복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같이 왔으면서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다. 이런 우리네 삶 속에서 사람 안에 깨달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만약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 않아 부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만나기만 하면 부처와 함께 살며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으로 생기는 고통은 없을 것이다.

또 한해가 저문다.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삶이 이어질 것이다. 그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만나기를 발원한다.

〈현웅스님·미국 버클리 육조사〉

스님사칭 사기 예방하려면

얼마전 TV 뉴스에서 스님을 사칭해 사기를 일삼은 사람이 붙잡힌 것을 보았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무려 1백여명이나 됐다는 사실이다.

그 범인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겠다며 부적을 팔고 심지어는 부녀자까지 농락했다고 한다. 아직도 이런 사기행각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정작 문제는 사기행각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에 속는 사람들이다. 그 사기꾼을 스님으로 알고 집안에 들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사기에 넘어갔다는 것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무슨 액땜을 하고 건강을 보살펴주는 종교가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다. 세상에 어떤 스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점을 봐주고 부적을 파는가. 적어도 이정도 생각만 했더라면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참다운 신행생활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창민·서울 신림동〉

사찰마다 이웃돕기 동참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구세군 자선냄비도 거리에 나오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부녀회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 어르신 돕기에 나선다.

불교계에서도 사찰과 복지관들을 중심으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적지 않게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전 모 복지관에서 열린 송년잔치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받고 선물까지 받았다며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던 이웃집 할머니를 보며 '사찰마다 저런 행사를 벌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찰들도 여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마음이라도 내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핀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이제는 구세군 자선냄비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길에서 자비함을 들고 모금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박현숙·부산 해운대구〉

산타복장 동자승보며 흐뭇

며칠전 우연히 조계사 앞을 지나다가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았다.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겠지'라고 무심코 지나치다 플래카드 양옆에 산타복장을 한 동자승이 그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건 것이었다. 이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 본연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그동안 종교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광적인 개신교 신자에 의해 불상과 단군상이 훼손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었다. 그래서인지 이 플래카드는 이웃 종교와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부처님 오신날에도 성당이나 교회에서 축하해주었던 것을 알고 있다. 서로간의 이해와 사랑이 깃든 작은 실천을 통해 보는 이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종교는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 플래카드 덕분에 기분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임종진·서울 강북구〉

기고

"전쟁 미화·왜곡 日 우익 인사들 참회 또 참회를"

혜진 스님
(나눔의 집 원장)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동경 구단회관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 열렸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도발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의 성노예 전범을 민간의 힘으로 판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였다.

3일간에 걸쳐 남북한과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 여러나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제출이 이어졌으며 마지막날인 12일에는 판결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회장 밖의 분위기는 너무나 달랐다. 양심있는 일본시민단체의 주도 아래 대회가 치러졌으나 대회장 밖에서는 연일 우익인사들의 집회와 항의가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일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히로히토는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차별을 비롯한 인륜에 반한 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히로이토 일왕과 일본정부에 유죄를 선언한 것이었다. 순간 대회장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으며 일부 위안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장 밖에서는 이날도 역시 "일본군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성기를 통해 외쳐대며 난리를 피웠다. 당시 대회장에는 200여명이 넘는 해외취재진이 취재에 열을 올렸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100여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눈과 귀를 집중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이튿날 이 일은 아사히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문에서 기사화되지 않았다.

대회기간 중 필자는 일본사회의 실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날로 우익화돼가는 일본은, 자신들의 범죄를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보다는 전쟁을 미화하고 왜곡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법정이 민간에 의한 법정이라 사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재판부가 판결한 인도주의적 선언이었다. 일본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류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참회하기를 바란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0년 11·12월호
제17호

불교특강 - 21세기의 화두를 불교에 묻는다
업과 윤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최봉수(동국대 사회교육원) 선생의 정확하고도 확실한 설명. 불교교리 중에서 업과 윤회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2000년 특별기획
디지털 시대의 육바라밀(六波羅蜜) - ⑤ 선정(禪定)·⑥ 반야(般若)
육바라밀 중에서 선정과 반야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화두선에서의 선정 · 반야(혜거 스님/금강선원 원장)
- 비파사나를 통해 본 선정 · 반야(원담 스님/송광사 선원)
■ 현재를 미치며/이 시대 진정한 육바라밀행은 무엇인가 (김호성/동국대 교수)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⑤
-위당(威堂) 신헌(申櫶, 1810 ~ 1884)이 쓴 서울 화계사 '보화루(寶華樓)'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① . 이호신 화백의 생태그림기행 - 그림 속에서 찾는 山水와 가람의 숨결 - 김천 황악산 직지사

컬러화보 ② . 사진으로 보는 가람의 어제와 오늘 - 선운사와 쌍봉사의 주요 전각들의 신구 사진을 통해 살펴본다

포커스/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오싱젠과 불교
- 국내 미발표된 그의 불교적 작품, 『영산(靈山)』을 소개한다

좋은 책 읽기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페마 쵸드론 스님의 책 읽기(진우기/KBS, 불교문화센터 강사) - 『하늘이 무너질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불교가 주는 마음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결법을 말하고 있다.

최초 발굴 일본 속의 신라불교와 문화 탐방 ⑤
- 신라 진평왕과 왜의 백제인 스이코 여왕(하)
신라 진평왕대에 동양에서 최초로 여왕에 오른 일본의 백제사람 스이코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라불교와 문화를 만난다

중국 속의 한국불적 / 구산선문의 원류를 찾아서 (마지막회)
- 강서성의 선종관련 한국사찰 답사 ②

인물포커스 근·현대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문학편)
1 譯經과 불교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원하 김달진 선생
2 禪을 노래한 청록파 시인, 조지훈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영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